태고종, 미디어 자문위 출범…소통 강화

상진 스님, 9월 10일 전승관서
방송·신문 등 전문가 11명 위촉
전략 자문·콘텐츠 개발 등 역할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9월 10일 서울 전통문화전승관 3층 대웅보전에서 미디어 자문위원 11명을 위촉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언론·홍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디어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종단의 대외 소통과 홍보 역량 강화에 나선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9월 10일 서울 전통문화전승관 3층 대웅보전에서 미디어 자문위원들을 위촉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종단의 다양한 활동과 불교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에 위촉된 미디어 자문위원은 방송·신문·통신·인터넷 언론·홍보·콘텐츠·학계 등 미디어 각 분야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 11명이다.

김대홍 KBS 보도본부장, 김한수 조선일보 종교전문기자, 김동훈 KT 전무·홍보실장, 오동운 MBC 교양국장, 남철우 동국대 광고홍보학과 대우교수, 최정엽 뉴시안 대표, 장윤희 연합뉴스TV 디지털이슈팀장, 홍순준 SBS 사회부장, 윤정재 홍보·콘텐츠 기획가, 박미영 뉴시스 부장, 임훈구 아시아경제 콘텐츠편집부 부국장 등이 참여한다.

방송기자와 PD, 신문기자, 통신·플랫폼 및 인터넷 언론 관계자, 홍보·콘텐츠 전문가와 광고홍보학계 인사까지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참여하면서 전통적인 언론 홍보를 넘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는 종단 홍보 전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태고종은 미디어 자문위원회를 통해 종단의 활동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대중의 콘텐츠 소비 방식과 미디어 이용 행태를 고려한 효과적인 소통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상진 스님은 위촉식에서 "태고종의 전통과 가치를 시대에 맞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알리고 국민과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미디어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면서 "미디어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태고종이 국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단의 소식을 알리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불교의 역할과 가치를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종단의 미디어 정책과 홍보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종단의 주요 사업과 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과정에서 미디어 활용 방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종단 이미지 제고와 콘텐츠 기획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언론 보도와 방송, 디지털 플랫폼, 콘텐츠 제작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만큼 사안별 특성에 맞는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불교와 태고종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자문위원들은 "각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태고종의 좋은 활동이 국민들에게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문하겠다"면서 "태고종과 언론·미디어 현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월정사 주지에 인광 스님 임명

진우 스님, 9월 8일 임명장 수여
인광 스님 "모범 교구로 최선"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에 인광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9월 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인광 스님에게 월정사 주지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인광 스님은 9월 1일 월정사에서 열린 '본사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서 선거인단 161명 중 119표를 얻어 주지 후보로 선출됐다.

진우 스님은 "여러 불사와 포교 전법의 노하우를 잘 전승해 멈춤 없이 발전하길 바란다"며 "한국불교 미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대중과 화합해 교구를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인광 스님은 "모범적인 교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이 경책해주고 지도편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이날 인광 스님은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네팔 대홍수 재난구호 지원금' 3000만원, 자비나눔 성금 5000만원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김내영 기자

군종교구, 명예군승에 호산 스님 위촉

9월 8일 남양주 봉선사서
위촉장·전시 가사 등 수여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 스님)가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을 명예군승으로 위촉했다.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은 9월 8일 남양주 봉선사 청풍루에서 개최한 '2026년 군승 하계 수련회 입재식'에서 호산 스님에게 명예군승 위촉장을 전달하고 전시 가사를 수여했다.

호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내년 육군훈련소 수계법회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또한 호국연무사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기적으로 방문해 군포교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같은 날 '2026년 군승 하계 수련회'와 '2026년 군포교팀 포교사 간담회'도 열렸다. 이번 군승 하계 수련회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봉선사와 가평 일대에서 진행됐다. 수련회에는 현역 군승과 군사찰 상주 민간성직자 등이 참여해 군 역량 교육과 군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육군사관학교 화랑호국사에서 열린 '2026년 군포교팀 포교사 간담회'에서는 군포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지운 기자

조계종, 총무원·산하기관 교역직 종무원 인사 단행

진우 스님, 9월 8일 임명

조계종이 공석이던 일부 총무원 및 산하기관 교역직 종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9월 8일 오전 총무원 미래본부 사무총장에 일감 스님, 미디어홍보실장에 일규 스님,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에 성행 스님,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총장에 덕유 스님, 불교신문사 사장에 효명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에 상원 스님, 사회복지재단 사무처장에 덕운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앞서 9월 4일에는 총무원 사서실장에 남전 스님을, 사서국장에 구산 스님을, 사서과장에 영경 스님을 임명했다.

김내영 기자

실무 중심 선명상 지도법사 역량 교육

10월 6~9일 한국문화연수원서
현장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 교육

선명상 지도법사 양성 교육 신청서 QR.

조계종 미래본부(본부장 일감 스님)가 선명상 프로그램을 이끌 지도법사들의 수행지도 역량 강화에 나선다.

미래본부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 4일간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선명상 지도법사 양성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선명상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세계 명상의 흐름 속에서 선명상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편, 지도법사들의 수행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은 다양한 선명상 프로그램을 직접 실습하고 조별 시범운영과 발표를 진행하는 등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화두선명상, 자비명상, 호흡명상, 걷기명상, 차명상, 소리명상 등이 준비됐다. 선명상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세계 명상의 흐름, 선명상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방법, 선명상 대중화 전략 연구 방향 등 이론 강의도 이어진다. 교육 마지막 날에는 회향 법문과 수료식이 진행되며, 연수 수료증 발급은 지도법사 인증과정과 연계된다.

교육 대상은 현재 선명상 운영사찰과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에서 선명상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법사를 비롯해 선명상에 관심 있는 스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60명이며 선착순 접수한다. 신청은 9월 30일까지 구글폼을 통해 가능하다. 참가비는 30만원이다.

미래본부는 "이번 교육이 선명상 지도법사들의 수행지도와 포교·교육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선명상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과 대중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 모두의 평안과 행복에 기여하는 초석에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명상 지도법사 양성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선명상 공식 홈페이지(https://seonmeditation.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2011-1690

김내영 기자

조계종 제38회 포교대상 후보자 공모

계층·직능·문화체육 등 분야서
10월 8일까지 우편 및 내방 접수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불교와 종단 발전에 기여한 스님을 비롯해 재가자, 사찰, 단체들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올해의 포교대상 수상자를 추천받는다.

조계종 포교부(부장 정무 스님)는 9월 8일 불기2570(2026)년도 '제38회 조계종 포교대상' 시행 공고를 발표했다. 접수는 10월 8일까지며, 계층포교·직능포교·문화체육포교·사회포교·대중매체포교·지역포교분야에서 대상, 공로상, 원력상 등을 선정한다.

제출 서류는 포교부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내방으로 접수하면 된다. 02-2011-1903

박지운 기자

2026년 진각종 밀교의례사업단 추계 학술대회

- 일 시 : 2026년 9월 29일 화요일 10시 30분
- 장 소 : 대한불교진각종 총인원 3층 대회의실
- 대주제 : 밀교의례의 설행과 전개
- 주 최 : 밀교의례사업단, 한국밀교학회, 위덕대학교 밀교문화연구원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불교진각종, 불교총지종

〈학술대회 시간일정〉

■ 총사회자 : 밀교의례사업단 책임연구원 명운(김치온)
10: 30 – 11: 00 예참 / 밀교의례사업단 총괄팀장, 교육원 교법연구실장 효광 정사
개회사 / 밀교의례사업단 실무단장, 진각종 교육원장 정법 정사
축사 / 밀교의례사업단 사업단장,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록경 정사,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종석 스님
내빈소개 / 사진촬영

■ 사회자 : 차차석(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
11: 00 – 12: 00 제1주제 발표 / 밀교의례 공양법에 대하여 (혜안화 전수, 위덕대)

■ 12: 00 – 13: 00 점심 및 휴식

■ 사회자: 권기현(위덕대 교수)
13: 00 – 14: 00 제2주제 발표 / 밀교의례 만다라 작법에 대하여(방정란, 경상국립대)

■ 사회자: 이병욱(보조사상연구원 원장)
14: 00 – 15: 00 제3주제 발표 / 밀교의례 관정에 대하여(성제 정사, 위덕대 교수)

■ 15: 00 – 15: 10 휴식 및 다과

■ 사회자: 김치온(동방문화대학원대 연구교수)
15: 10 – 16: 10 제4주제 발표 / 밀교의 티베트 호마의례에 대하여(박영빈, 밀교의례사업단 전임연구원)

■ 사회자: 김경집(동국대 초빙교수)
16: 10 – 17: 10 제5주제 발표 / 불복장의 만다라 정토(강대현, 위덕대 연구교수)

■ 17: 10 – 17: 30 총평 및 폐회사

대한불교진각종 밀교의례사업단

영규대사 서거 434주기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 다례문화재

일 시 : 불기 2570(2026)년 9월 23일(수) 10:00
장 소 : 공주시 마곡사 대광보전 앞 주무대
주 최 : 충청남도 공주시 GONGJU CITY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 6교구 본사 麻谷寺

